

5·18 생생한 증언 시민 구술자료 '낮잠'

기념재단 보관 피해자 686명 녹취록 등 방대한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불구 활용방안 못찾고 장기간 방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앞두고 5월 정신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들이 공개되지 못하고 수장고 암실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자료임에도, 신뢰성을 갖춘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고이 모셔져 있는' 형편이다.

24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기념재단 주도로 5월 당시 상황이 담긴 600여명 시민들의 증언록이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보관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증언록은 기념재단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시민들의 육성을 녹취한 뒤 옮겨져 보관한 자료로, 의미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기념재단 측은 당시 수백 명의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686명의 증언을 청취한 뒤 이를 방치해오다 지난 2005년 전남대 한 연구팀에 전사를 의뢰함으로써 녹취파일(500시간 분량)과 A4용지 1만장 분량의 방대한 기록 자료로 구성해 보관중이다.

재단 측은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 넘게 보관중이다.

재단 측은 "현재 상태로는 교육 목적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애초 구술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미

흡했기 때문이라는 게 5·18 기념재단 측 해명이다.

증언록 작성을 위한 표준 질문지나 증언 확보를 위한 구술 채록자들의 사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10년 이상 이를 보완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5·18 기념재단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이 구술자료가 교육목적 등 자료 형태로 만들어져 일반에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5·18 기념재단 측의 설명이다.

5·18 기념재단이 5월 항쟁을 알리고 계승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도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5·18 기념재단의 증언록 의뢰를 받아 전사작업에 참여한 A씨는 "완벽한 전사문이라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5·18 당시 사실을 아는 데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지

적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현재 자료로는 연구자들이 5·18을 연구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거나 교육 목적의 공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 민주화운동 자료 ▲군사법기관 재판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선언문·취재수첩·일기 ▲사진·자료 ▲5·18 기념재단 구술기록 등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회의록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등 9개 주제로 돼 있다.

총 분량은 편철 4271권·약 85만8904쪽, 흑백필름과 사진은 약 2017장.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8 | 해질 11:17
해진 18:24 | 달질 00:22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1/10	보성	흐림	-2/9
목포	흐림	1/9	순천	흐림	2/10
여수	흐림	3/9	영광	흐림	-2/10
나주	흐림	-2/11	진도	흐림	0/9
완도	흐림	1/10	전주	흐림	-1/11
구례	흐림	-2/10	군산	흐림	-1/9
강진	흐림	0/10	남원	흐림	-3/10
해남	흐림	-1/10	홍산도	흐림	3/9
장성	흐림	-2/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남해	남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	남바다(동)	북동~동	0.5	동~남동	0.5~1.0
서부	남바다(서)	북동~동	0.5~1.5	동~남동	0.5~1.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70
빨래	90

◇시간 날씨

26(목)	27(금)	28(토)	3/1(일)	2(월)	3(화)	4(수)
☁	☀	☁	☁	☀	☀	☀
4/7	-2/6	-1/7	3/8	1/9	1/10	1/7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손익 소송회장(왼쪽)이 강제징용의 실상을 담은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1000명의 원고단을 구성해 미지불 노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1천명, 日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소 추진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0명을 모아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지금까지 1400여부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

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이다. 2012년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온 뒤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고 1000명이 꾸러지면 대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족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는 오는 5월 23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5·18 왜곡 근절

법적 대응 등 불사

광주시 대책위 회의

광주시가 5·18 왜곡 등의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적 대응 등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4일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5·18 역사왜곡 관련법 개정과 편향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5·18 왜곡과 편향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은 끝까지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 나타난 민주화운동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구글'에서 광주시를 검색하면 나치기(卍)에 흥어를 집어넣은 그림이 등장, 시가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또 수년째 지지부진한 '입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기념곡 지정 등을 위해 국회, 사회단체 등과 함께 정부와 보존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우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역사를 왜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어 불순한 세력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49명에 3480만원 배상 판결

웹다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 업로드했던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20만원~100만원씩 모두 3480만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2010년 개봉)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웹다드업체와 이 영화를 일정금액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다만, 피소된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들의 저작권 침해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다. /연합뉴스

PC방 차려 놓고 불법 스크린경마장 운영 업주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불법 스크린경마장을 운영한 업주 정모(61)씨를 계 입산업진흥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PC방을 개업한 뒤 불법으로 스크린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정씨는 일반 사행성 게임장으로 영업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의 단속을 우려, PC방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간판까지 내걸고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수범으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게임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기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비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상생,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비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444명 010 68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